

# 보존도서관 공동설립을 위한 연구

부산대학교 도서관  
조 용 완

## < 목 차 >

- |                               |                              |
|-------------------------------|------------------------------|
| 1. 시작하며                       | 3. 자료공간문제 해결방안으로써의 보존<br>도서관 |
| 2. 대학도서관 자료수장공간 부족<br>문제의 심각성 | 3.1 보존도서관의 유형                |
| 2.1 대학도서관의 연간 장서증<br>가 현황     | 3.2 보존도서관의 시설                |
| 2.2 대학도서관의 공간부족 현황            | 3.3 보존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           |
| 2.3 공간부족 문제해결을 위한<br>기존방법의 한계 | 3.4 보존도서관의 장단점               |
|                               | 4. 보존도서관 공동설립을 위한 방안         |
|                               | 5. 마치며                       |

## I. 시작하며

최근 각 대학도서관마다 매년 늘어나는 장서량과 정보화 관련시설(정보검색 공간, 서버 등 전산장비 공간 등)로 인해 도서관 공간부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특히,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장서량으로 인해 자료수장공간이 부족하여 매년 증가하는 서가들이 사서들의 업무공간과 이용자 열람 공간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

이에 대학도서관들은 자료수장공간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거나 기존의 도서관을 증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신축과 증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학교 당국에서는 도서관의 숙원사업을 뒤

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편으로는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공간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학위논문이나 대학논총 등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고,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으며, 저작권 법상의 문제들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오래되고 이용이 거의 없는 장서를 폐기함으로써 자료수장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 장서폐기에 관한 법적,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이들 장서의 폐기도 쉽지 않으며, 미래의 잠재적 이용에 대한 준비 없는 장서폐기 역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어, 도서관에서는 장서폐기를 통한 부족한 자료공간의 확충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각 대학도서관에서는 기존의 업무공간이나 이

용자공간을 줄여가며 자료수장공간을 늘리고 있고, 심지어는 자료를 복도나 계단에 그냥 쌓아두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장서량 증가로 인한 자료수장공간의 부족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등 다른 여러 나라의 대학당국과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이들 나라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도서관공간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고밀집서가와 우수한 보존환경, 보안시설을 갖춘 보존도서관(deposit library)의 설립을 채택하여 실행해 왔다. 보존도서관의 형태도 개별 대학도서관에 부속하여 건립하는 방식, 여러 도서관들이 공동 협력의 형태로 건립하는 방식,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의 보존도서관을 건립·운영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정보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디지털 형태의 자료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존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와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자료수장공간의 부족함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존도서관의 설립, 특히 비용-효과면에서 우수한 공동보존도서관의 설립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시도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겪고 있는 자료수장공간의 부족문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되었던 기존 방안

들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간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보존도서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운영되어 오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보존도서관 설립방식으로써 권역별 공동 보존도서관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대학도서관 자료수장공간 부족문제의 심각성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겪고 있는 자료수장공간 부족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인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도서관과 사립대학도서관 중에서 대학규모별, 지역별로 조사대상이 되는 대학을 선정한 후,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통계』 등 각종 도서관 관련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공간부족 현황을 조사하였다.<sup>1)</sup>

### 2.1 대학도서관의 연간 장서증가 현황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자료수장공간 부족문제를 조사함에 있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은 대학도서관들의 연간 장서 증가규모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

1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2002』,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lt;표 1. 국내 대학도서관의 1년간(2001-2002년) 장서증가 규모&gt;

| 항목                    | 대학 | 서울대<br>중앙 | 부산대<br>중앙 | 충북대     | 전주<br>교대 | 인천대     | 조선대<br>중앙 | 한양대     | 동아대     |
|-----------------------|----|-----------|-----------|---------|----------|---------|-----------|---------|---------|
| ① 장서수(권)              |    | 2,191,591 | 1,131,165 | 537,740 | 96,470   | 212,494 | 883,805   | 943,298 | 850,077 |
| ② 연간도서증가량(권)          |    | 96,888    | 20,979    | 30,285  | 12,475   | 10,598  | 43,042    | 29,937  | 45,211  |
| ③ 연간도서증가율(%<br>(②+①)) |    | 4.4       | 1.9       | 5.6     | 12.9     | 5.0     | 4.9       | 3.2     | 5.3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2002』 참조.)

이다. 장서증가규모가 클수록 도서관의 공간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증가규모가 크지 않다면 공간문제로 인한 압박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지난 1년간 장서증가 규모는 <표 1>과 같다.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내 대학도서관들의 장서는 평균 연간 약 5%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이와 같은 추세로 증가한다고 예상한다면, 향후 4년 뒤에는 현재 장서의 약 20%를 수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장서규모가 100만권인 대학도서관은 향후 4년 뒤에는 20만권의 장서를 현재의 건물에 더 수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만일 현재의 이들 대학도서관의 자료수장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자료수장에 있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 2.2 대학도서관의 공간부족 현황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자료수장공간은 이와 같이 증가하는 장서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순수한 자료수장공간을 통해 자료수장공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현재 국공립대학 도서관과 사립대학 도서관의 통계자료에는 순수한 의미의 자료수장공간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에서 발행한 2002년 『회원교편람』에는 도서관 전체 면적만이 기술되어 있었으며, 국공립대학 도서관협의회 《국립대학도서관보》의 경우, 서고 면적은 정확히 기술되어 있으나, 자료실 면적에는 자료수장공간 이외에 열람 테이블이나 검색용 PC 등 자료수장 이외의 목적을 가진 공간도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자료수장공간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료수장공간을 정확히 산출하여 이를 가지고 자료수장공간의 적정성 여부를 비교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자료공간을 포함한 전체 도서관 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도서관 전체 공간부족 현상을 진단하였다. 비록 자료수장공간에 국한된 검증은 아니지만, 도서관 전체 공간이 부족하다면 자료수장공간 또한 부족한 경향

이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자료수장공간 부족문제를 증명하기에는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의 면적기준에 관해 연구한 손정표교수에 따르면, 도서관의 내부공간 구성은 다음의 요소들로 이루어진다.<sup>2)</sup>

- 이용자공간 : 개가제 자료실 이용자 좌석, 일반열람실, 연구실 및 캐럴, PC 및 PC용 책상 면적 등의 공간
- 자료수장공간 : 도서용 공간, 연속간행물 전시용 공간, 비도서자료용 공간 등
- 직원공간 : 도서관 직원의 업무공간, 회의공간 및 휴게공간
- 부대공간 : 기기이용 및 업무수행 또는 회의, 휴식, 자료전시 등을 위해 이용자·자료·직원공간에 딸려진 공간
- 공유공간 : 복도, 계단, 현관홀, 각종 로비, 소지품보관소, 엘리베이터, 화장실, 휴게실, 기계실 등 공중용 공간 및 기타 공간
- ※ 이용자공간, 자료수장공간, 직원공간, 부대공간을 합친 면적을 순사용면적이라 한다.

손정표교수는 이들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대학도서관의 공간면적에 대한 최저기준안과 석박사학위과정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적정기준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p>&lt;최저기준안&gt;<br/> <math display="block">N = 0.45Tm^2(a) + 0.0107Vm^2(b) + 10.1Sm^2(c) + 0.05(a+b+c)m^2</math> <math display="block">NS = 0.25Nm^2</math></p> <p>&lt;적정기준안&gt;<br/> <math display="block">N = 0.64Tm^2(a) + 0.01Vm^2(b) + 9.7Sm^2(c) + 0.05(a+b+c)m^2</math> <math display="block">NS = 0.25Nm^2</math></p> <p><math>N</math>=순사용면적, <math>T</math>=총학생정원, <math>V</math>=총장서수, <math>S</math>=전체직원수, <math>NS</math>=공유면적</p> |
|---------------------------------------------------------------------------------------------------------------------------------------------------------------------------------------------------------------------------------------------------------------------------------------------------------------------------------------------------------------------------------------------------------------------------------------------------|

이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의 전체 면적이 대학도서관의 최소기준과 적정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대학도서관은 매년 5% 이상씩 장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를 수장해야 하는 대학도서관의 공간은 현재 시점에서조차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몇 년 사이에 도서관 신축 또는 증축이나 협력 보존도서관의 건립 등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현재 장서의 10-20%의 장서를 현재의 도서관 건물 내에 수용하기 위해 이용자공간과 업무공간을 서고로 잠식함은 물론이고 계단과 복도에도 자료를 쌓아두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도서관 공간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손정표, “대학도서관 시설기준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3집(1995. 12), pp.372-381.

<표 2. 주요대학도서관의 면적 현황 및 최소/적정기준 면적>

| 대학<br>항목                               | 서울대<br>중앙 | 부산대<br>중앙 | 충북대     | 전주<br>교대 | 인천대     | 조선대<br>중앙 | 한양대     | 동아대     |
|----------------------------------------|-----------|-----------|---------|----------|---------|-----------|---------|---------|
| ① 총 학생정원(명)                            | 31,181    | 23,231    | 16,980  | 1,732    | 7,636   | 22,471    | 25,244  | 20,662  |
| ② 장서수(권)                               | 2,191,591 | 1,131,165 | 537,740 | 96,470   | 212,494 | 883,805   | 943,298 | 850,077 |
| ③ 도서관직원수(명)                            | 99        | 50        | 36      | 5        | 10      | 35        | 30      | 51      |
| ④ 현재 도서관면적(m <sup>2</sup> )            | 39,611    | 22,764    | 13,828  | 2,413    | 8,254   | 12,057    | 25,986  | 6,556   |
| ⑤ 최소기준 도서관면적(m <sup>2</sup> ) 및 충족도(%) | 50,507    | 30,269    | 18,058  | 2,444    | 7,627   | 26,148    | 28,555  | 24,818  |
|                                        | 78.43     | 75.20     | 76.58   | 98.73    | 108.22  | 46.11     | 91.00   | 26.42   |
| ⑥ 적정기준 도서관면적(m <sup>2</sup> ) 및 충족도(%) | 56,217    | 34,997    | 21,779  | 2,785    | 9,331   | 30,921    | 33,968  | 29,163  |
|                                        | 70.46     | 65.05     | 63.49   | 86.65    | 88.46   | 38.99     | 76.50   | 22.48   |

- ① 총학생정원 :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합한 정원.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0집(2002) 및 『회원교편람』(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2002) 참조.
- ② 장서수 : 국내서+국외서+고서.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2002』 참조.
- ③ 도서관직원수 : 전체 도서관 직원수.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2002』 참조.
- ④ 현재 도서관면적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2002』 참조.
- ⑤ ⑥ 충족도 : 기준면적 ÷ 현재 도서관면적

### 2.3 공간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방법의 한계

대학도서관의 자료수장공간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의 노력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새로운 도서관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도서관을 증축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자료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자료수장공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끝으로, 장서폐기를 통한 문제해결 방법이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들은 대학도서관의 자료수장공간을 확장하는 효율적이고 효과

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도서관을 신축하거나 기존 도서관을 증축한다는 것은 곧 대학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연구에서는 미국의 경우, 199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축 도서관 건립에 평방피트당 적게는 \$86에서 많게는 \$263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sup>3)</sup> 만일 중간 정도의 비용인 평방피트당 \$175를 들여 5000평 규모(약 177,912 평방피트)로 도서관을

3 Maureen Pastine, et al., "The Need for New Space and Storage Facilities", *Library Issues*, vol.20, no.1(Sep 1999). *Library Issues* 홈페이지(<http://www.libraryissues.com/sub/LI9909.asp>)

건립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42억원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년 3월 개관을 예정으로 도서관(청암학술정보관)을 신축하고 있는 포항공대는 연면적 6,400평(주차장 포함 7,400평)의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총4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sup>4)</sup> 언제나 예산의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당국의 입장에서는 도서관의 신축/증축 이외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들이 즐비한 상태에서 쉽사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서관의 신축이나 증축에 나설 수가 없는 실정이다. 도서관의 공간문제가 심각하여 당장 신축이나 증축이 필요하다더라도 대학당국의 사업 우선순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만 몇 년, 예산이 반영되어 설계와 건축과정에 또 몇 년이 소요되므로 도서관이 신축/증축되는 사이에 도서관의 공간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특히, 국공립대학도서관의 경우, 설령 대학도서관 신축이나 증축을 위한 사업계획이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규모가 축소되어 애초에 계획했던 규모로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도서관의 자료수장공간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도서관 건물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것이겠지만, 예산과 부지가 부족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도서관의 자료수장공간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자료의 디지털화

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공간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학도서관에는 과거에 비해 각종 학술DB, 전자저널, CD-ROM 등 디지털 매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쇄매체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소급 디지털화(retrospective digitization)도 진행되어 왔지만, 디지털 원문 DB구축에 소요되는 비용문제와 저작권 문제로 공간문제 해결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소급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료는 대부분이 학위논문이나 고서이며,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에서 발간하는 논총정도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꺼운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의 디지털작업은 엄청난 비용과 저작권법문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급 디지털화를 통한 공간문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용이 거의 없거나 출판된 지 오래된 장서를 폐기하여 자료수장공간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진행되어 왔다. 자료공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공간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불필요한 장서의 폐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현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8조와 그 시행령 제7조에는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에 관한 기준과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각종 대학평가의 도서관 평가기준으로써 장서량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폐기기준 설정 및 폐기방안 수립의 어려움, 폐기에 따른 비용문제와 직원의 업무과중, 장서폐기에 대한 행정적, 법적

4 포항공대 도서관 홈페이지([http://www.poh.ac.kr/library/resources/public\\_data/200206.ppt](http://www.poh.ac.kr/library/resources/public_data/200206.ppt))

문제, 그리고, 도서에 대한 지나친 신성화 또는 경외감 등이 원인이 되어 그동안 불필요 장서에 대한 폐기가 어려웠다.<sup>5)</sup> 하지만, 한편으로 불필요한 장서라 하더라도 미래의 잠재적 이용에 대비한 보존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준비 없는 장서폐기를 시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 도서관에서는 장서폐기를 통한 부족한 자료공간의 확충도 어려운 실정이다.<sup>6)</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학도서관의 부족한 자료수장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들은 예산, 법, 제도, 인력, 사회적 인식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문제해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국내와는 달리, 여러 나라에서는 대학도서관의 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고밀집서가와 뛰어난 보존환경을 갖춘 보존도서관을 건립하여 자주 이용되지 않는 자료를 이관하여 보관하며 이용자의 필요시 서비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비용 대 효율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여러 도서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보존을 전문으로 하는 저장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존도서관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자료공간문제 해결방안으로써의 보존도서관

#### 3.1 보존도서관의 유형

##### (1) 한 개의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보존도서관

이 유형은 한 대학에서 대학도서관의 자료수장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내부 또는 외부에 전문적인 저장시설을 갖춘 별도의 보존도서관 건물을 건립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보존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대학도서관의 장서 규모가 상당히 크고, 부지와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 우수한 대학에서 자주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Harvard University의 Harvard Depository를 비롯해 Johns Hopkins University의 Moravia Park Shelving Facility, Yale University의 Library Shelving Facility, Cornell University의 Library Annex 등이 있다.

##### 사례 - Harvard Depository<sup>7)8)</sup>

Harvard Depository는 1986년 대학 내

5 마선희, 「장서폐기의 기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2000. 12). 22-26쪽.

6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0집(2002)의 통계 중 1년간 장서등록 및 제적책수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49개 국공립대학 중 2001년에 제적작업을 한 대학은 딱 3곳 뿐이었다.

7 The Harvard Depository 홈페이지(<http://hul.harvard.edu/hd/about-hd.html>)

8 Barbara Graham, *The Harvard Depository, Library off-site shelving : guide for high-density facilities*, Englewood : Libraries, 2001, p.9.

의 여러 도서관들과 문서관, 그리고 대학 행정부서의 자료수장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보존환경을 갖춘 동시에, 고밀집 저장시설을 가진 보존도서관을 설립하였다. 이 시설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하버드대학 도서관과 대학의 Central Administration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Harvard Depository는 비용대 효과면에서 매우 우수한 고밀집 저장시설을 이용해 보존도서관을 설립한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에 이후 Harvard model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보존도서관의 설립에 영향을 끼쳤다.

## (2) 2개 이상의 도서관이 협력하여 설립한 공동보존도서관

이 유형은 도서관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인 자료수장공간 부족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도서관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캠퍼스 내부 또는 외부에 보존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공동협력 보존도서관은 1942년 3월에 하버드대학 도서관을 비롯한 미국 북동부의 뉴잉글랜드 지역 도서관들의 공동협력 보존을 위해 하버드대학이 기증한 대지 위에서 건립된 the New England Depository라고 할 수 있다.<sup>9)10)</sup>

이 유형은 주로 지역(regional)을 기반

으로 구축되는데, 미국 UC Berkeley 등 University of California(UC)의 북부지역 4개 대학도서관의 Nor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NRLF)와 UCLA 등 UC의 남부지역 5개 대학도서관들로 구성된 The 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SRLF), Colorado주의 공·사립 대학도서관들이 공동 참여하는 the Preservation and Access Service Center for Colorado Academic Libraries(PASCAL), 호주 빅토리아주의 Victorian University Libraries와 State Library of Victoria의 협력 컨소시엄 CAVAL의 The CAVAL for Archival and Research Materials(CARM) 등이 주로 주 단위의 지역적 기반에 근거하여 구축된 공동보존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여러 주에 걸친 매우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구축된 공동보존도서관도 있는데, 미국 동부의 New England 지역 6개 주 700여 도서관들의 협력망인 NELINET(New England's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network)이 운영하는 New England Regional Depository가 그런 경우이다.

공동보존도서관은 동일한 관종인 대학도서관들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등 다른 여러 관종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워싱턴 D.C 지역의 The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WRLC),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the University of Waterloo 등 3개 대학이 참여하는 TUG Annex, PASCAL 등 많은 공동보존도서관들이 해당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컬럼비아대학, 프린스턴대학, 뉴욕 공공도서관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9 홍영의, "보존도서관에 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166호(1983. 7), p.16.

10 David Block, "Remote storage in research librarie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44, no.4(Oct 2000), p.186.



있는 ReCAP(The Research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 NELINET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설립주체에 따라서 국가/주 단위의 기금으로 설립되는 형태(미국 Ohio주의 공동보존도서관 시스템)와 여러 도서관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비용을 분담하여 설립되는 형태(대부분의 경우)로 나눌 수도 있다.

설립장소 측면에서는, 회원 대학이나 기관 중 규모가 큰 대학이나 기관 내에 설립되는 경우도 있고, 모든 회원 대학이나 기관의 부지로부터 등거리에 가깝게 떨어진 제3의 장소에 설립되는 경우도 있다.

공동보존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보통 참여도서관의 관장급으로 구성된 위원회(SRLF의 Southern Regional Library Board, PASCAL의 Oversight Committee 등)를 설치하여 결정하며, 예산은 주로 참여기관들이 나누어 부담한다.

### 사례 1 - The Ohio State-Wide Remote Storage System<sup>11)12)13)</sup>

11 Pat Salomon & Barbara Shaffer, "Compact storage - A part of the OhioLINK strategy and a solution to shelving needs for journal collections", *Advances in Serials Management*, vol.6(1997), pp.169-185.

12 Northeastern Ohio Universities College of Medicine 홈페이지 (<http://riker.neoucom.edu/~jscalf/statewide.html>)

13 원격저장(remote storage, off-site storage, remote shelving)이라는 용어는 저이용(low-used) 자료를 소장되어 있던 원 도서관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대학 내부 또는 외부의 원격지)에 건립

Ohio주는 주에서 지원하는 대학들의 도서관 공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주내 도서관들의 협력기구인 OhioLINK와 주 단위의 공동보존 프로그램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공동보존프로그램은 1994~96년에 Ohio주 북동/북서/남서/남동/중앙지역에 설립된 5개의 공동보존도서관시스템으로 구현되고 있다.(The Northeastern Ohio Cooperative Regional Library Depository, The Northwest Ohio Regional Book Depository, The Southwest Ohio Regional Depository, The Southeast Ohio Depository, The Ohio State University Library Book Depository 등이며 각각 1~5개의 대학도서관을 지원함) 여기에 저장된 자료들은 모두 고밀집 저장시설에 저장되어 있는데, 자료들은 사이즈(높이와 너비)에 따라 배열되어 39피트(약 12m) 높이의 서가로 배열된다. 서가의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man-abroad lift를 사용한다. 보존도서관들은 장기간의 보존을 위해 온도, 환기, 습도 등 최적의 환경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용자들은 OhioLINK를 통해 목록 검색이 가능하나, 폐가제로 운영되므로 브라우징은 불가능하다. 상호대차, 원문복사, 직접 방문을 통해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료는 전용배달업체를 통해 배송된다.

### 사례 2 - The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WRLC)<sup>14)15)</sup>

된 저장시설로 이동하여 정장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14 Lizanne Payne, The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WRLC) : Off-S

WRLC는 1980년대 후반 워싱턴 D.C. 지역에 있는 American University 등 7개 대학도서관 자원공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원격(off-site) 자료저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WRLC는 대부분 사립대학으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조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회원의 재정적 책임 등을 기술한 계약을 통해 구성되었다. 저장정책은 도서관 직원들과 WRLC 컨소시엄 직원들의 자문위원회를 거쳐 WRLC 도서관 관장들에 의해 결정된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저장시설의 이용은 선착순이며, 개별 도서관의 시설이용에 대한 최대치와 최소치가 없으며, WRLC 저장을 위한 자료선정은 개별도서관의 자체 기준을 사용하며, WRLC에 중복 자료를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장시설은 하버드모델과 같은 고밀집 서가를 사용하며, 최대 110만권의 자료를 수장할 수 있으며, 서가는 12단의 30피트(9.144m) 높이이다. 자료보존을 위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며, 화재방지와 보안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회원기관 이용자들은 상호대차, 원문복사, ARIEL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회원 이용자도 상호대차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사례 3 - The Research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ReCAP)<sup>16)</sup>

ite Storage in a Voluntary Regional Consortium, *Library off-site shelving : guide for high-density facilities*, Englewood : Libraries, 2001, pp.42-48.

15 WRLC offsite storage 홈페이지(<http://www.wrlc.org/offsite.htm>)

ReCAP은 대학인 Columbia University, Princeton University와 공공도서관인 The New York Public Library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동 보존도서관으로, 2002년 1월 프린스턴 대학 캠퍼스 내에 설립되었다. ReCAP은 이용이 저조한 단행본과 저널을 저장시키기 위해 고밀집 서가를 사용하고 있고, 자료보존을 위한 최상의 환경과 사용하기 용이한 서고관리 및 자료이동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ReCAP의 규모는 총 218,820 평방피트(약 6,150 평)의 면적에 15개의 저장모듈을 갖추고 있어 총 3,750만 자료를 수용할 수 있다. 30피트(9m)높이의 고밀집 서가에 저장된 자료는 15가지 사이즈별로 배가되며 자동화된 주문운반장치(order picker)로 이동된다. 직원은 Executive Director, Facility Manager를 비롯하여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 Princeton University의 전임직원이다. 이용자들은 상호대차, 원문복사, 직접방문 등을 통해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호대차의 경우, 24시간 내에 배달된다.

### (3) 국가적으로 대규모 보존도서관을 설립

이 유형은 국가 내 모든 도서관들의 자료수장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가적 차원의 보존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라고 할

15 WRLC offsite storage 홈페이지(<http://www.wrlc.org/offsite.htm>)

16 ReCAP 홈페이지(<http://recap1.princeton.edu/about/general.html>)

17 "NYPL, Columbia, Princeton Cooperate

수 있다. 이러한 보존도서관에는 대학도서관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특수도서관 등 모든 형태의 도서관이 참여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핀란드의 National Repository Library(NRL)가 있다.

### 사례 - Finnish National Repository Library(NRL)<sup>18)19)</sup>

NRL은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등 핀란드의 모든 도서관의 공간문제 해결과 이를 통한 상호대차 운영을 목적으로 1989년에 핀란드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2년 6월말 현재 약 140여만권의 단행본과 80여만권의 연속간행물을 소장하고 있는데, NRL로 이관된 자료들은 NRL의 소유가 된다. 대학도서관들은 매년 자료입수량 규모의 30-50% 정도를 NRL로 발송하고 나머지를 자체 보관하게 되어 실제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 NRL의 자료에 대한 목록은 대학종합목록에 포함되어 검색되고 있으며, 핀란드와 스칸디나비아 등 어느 곳이든 우편, 팩스, ARIEL를 통해 상호대차와 원문복사가 무료로 제공된다.

## 3.2 보존도서관의 시설

보존도서관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0)</sup>

- 고밀집서가(High-density Shelving)<sup>21)</sup>
- 난방, 환기, 공기조절시스템(HVAC: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및 습도조절시스템
- 저장 공간내 보존시설
- 특수 조명시설
- 특수 창문시설(자외선, 단열 등)
- 모니터장비, 경보시스템, 화재·연기 감지 및 진압시스템, 금고, 캐비닛 등 보안시설
- archive box와 전동수레 등과 같은 이동 장치
- 저장공간 내 자료출납을 위해 lift 등 사람이나 자료를 이동할 수 있는 장비
- 업무용 및 검색용 PC와 디지털 전송 장비 또는 팩스 장비
- 마이크로필름 기계, 전화, 네트워크 연결장비 등의 장비
- 상호대차를 위한 전용 운송수단(셔틀버스)
- 각종 신호장치
- 자료수납 창구

20 Maureen Pastine, et al., op. cit.

21 한 사례로, Northeastern Ohio Cooperative Regional Library Depository는 10,812평방피트(약 304평) 면적에 150만권의 자료를 수장할 수 있는 보존도서관인데, 이 곳의 고밀집 저장시설은 10개의 서가로 되어 있으며, 각 서가의 길이는 176피트(약 49m)이고 높이가 30피트(약 9m)로, 서가의 총 길이는 16마일(약 26km)에 이른다.(<http://web.neoucom.edu/~jscalp/photo7.html>)

18 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 홈페이지(<http://www.nrl.fi/english/nrl01.htm>)

19 Hannu Taskinen & Pentti Vattulainen, "The Finnish National Repository Library: Academic and Public Libraries' Joint Venture", *Scandinavian Public Library Quarterly*, vol.31, no.1(1998), pp.15-18.

- 이용자 열람공간
- 직원 공간
- 휴식공간과 장애인시설

### 3.3 보존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

#### ① 자료대출서비스

보존도서관들은 저이용 자료의 효율적인 저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저장된 자료의 신속하고 편리한 이용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공동 보존도서관들은 회원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방문 또는 서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들어온 자료를 회원도서관으로 대부분 24시간(최대 48시간) 내에 배송한다. 비회원도서관 이용자는 자신이 속한 도서관의 Inter-Library Loan(ILL)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운송수단은 기존의 상호대차협력망에서 이용하는 전용 배송차량을 활용하거나 보존도서관에 부속되어 운영되는 전용 배송차량을 활용한다.

#### ② 원문복사서비스(Photocopy)/ARIEL/FAX

대부분의 보존도서관들은 복사기, 스캐너, ARIEL 프로그램, 팩스 등이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널 기사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요청 당일 스캐닝을 통해 ARIEL로 전송되거나 팩스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원문복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③ 직접 방문(visiting)

대부분의 경우, 보존도서관에 대한 자관 이용자 또는 회원도서관 소속 이용자(공

동보존도서관)의 직접적인 방문이 허용된다. 열람공간, 복사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어 방문자의 열람, 복사, 대출이 가능하다. 자관이용자 또는 회원도서관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도 직접 방문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이 때는 관내 열람만 허용되고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④ 자료의 검색

보존도서관에 저장된 자료들은 자료를 이관시킨 도서관의 목록과 보존도서관을 포함하여 운영되는 협력망의 공동목록시스템(예-University of California의 MEL VYL 온라인 공동목록시스템)을 통해 어디서든 검색이 가능하다.

### 3.4 보존도서관의 장단점 분석

보존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이 가지는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2)</sup>

첫째, 높은 비용절감효과이다. 도서관의 서가를 브라우징이 가능한 개가제 형태로 배치하게 되면, 높이가 다른 자료들을 같이 배가해야 하는데, 이런 배열은 서가의 한 선반당 25-35%의 공간 손실을 발생시킨다. 브라우징이 가능한 밀집배가는 일반적인 자료배가보다 2배의 자료수장 효과가 있으며, 자료의 사이즈별로 배가했을

22 Willis E. Bridegam, *A Collaborative Approach to Collection Storage: The Five-College Library Depository*, Washington :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CLIR), 2001. CLIR 홈페이지(<http://www.clir.org/pubs/reports/pub97/bodya.html>)

경우에는 3배의 효과를 가진다. 밀집배가를 더욱 높고 깊게 하면서, 복도공간을 더욱 줄이게 되면 일반적 배가보다 4배의 자료수장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또, 보존도서관은 일반적인 도서관의 개가식 서고 운영 방식을 따르지 않고, 고밀집 서가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간활용, 시설운영, 인력운영 등의 많은 면에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 준다.

둘째, 보존도서관은 항온항습, 살균 등 보존을 위한 최적의 환경에서 운영되므로, 자료의 원활한 보존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특히 유일본이면서 가치 있는 자료의 보존에 있어서 큰 장점이 된다.

셋째, 폐가제 상태로 운영되며, 모니터 장비 등 다양한 보안시설과 장치가 되어 있어, 자료의 도난과 도난으로 인한 대체 비용을 절감시킨다.

보존도서관을 통한 자료의 저장에 반드시 장점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자료가 자기 도서관이 아닌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다. 즉, 이용자들은 자관에 없기 때문에 도서관 목록검색이 아니면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존도서관은 대부분 폐가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료발견의 한 형태인 브라우징이 제공되지 않는다. 그리고, 검색을 통해 자료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자관에 없기 때문에 1-2일정도의 자료배송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보존도서관을 설립·운영함으로써, 도서관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개별 대학의 이용자들도 보존도서관에 저장된 다른 도서관들의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뛰어난 보존환경을 통해 더욱 오랫동안 양호한 상태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단점을 충분히 상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배송에 걸리는 시간적 문제는 ARIEL, 전자메일, FAX 서비스 등으로 어느 정도 극복될 것이다.

#### 4. 보존도서관 공동설립을 위한 방안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과 캐나다, 핀란드,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대학도서관의 고질적인 자료수장공간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존도서관을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고, 보존도서관이 가지는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개별 대학도서관들이 자료수장 공간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보존도서관의 설립·운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도 늘어나는 장서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보존도서관의 설립을 검토해야할 시점이 되었다. 마침 우리나라의 교육인적자원부도 『대학정보화활성화종합방안』이라는 정책문서에서 공동보존도서관의 설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sup>23)</sup> 이 문서의 <1.3. 학술·연구정보 유통체제 구축 및 공동활용

23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보화활성화종합방안』(2002. 12).

확산> 항목 아래 <1.3.3 상호대차 및 분담수서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출판된지 오래되어 이용율이 저조한 자료는 지역별·주제별 공동보존도서관에 보관·관리하고 원문복사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공동보존도서관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동보존도서관의 설립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공동보존도서관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먼저, 보존도서관의 설립형태를 고려해 볼 때, 앞에서 살펴본 세가지 형태 중 개별도서관 설립 형태는 수백만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에 적합하므로, 대학도서관의 예산과 인력규모가 매우 열악하고, 국내 대학도서관의 최대 장서규모가 200만권을 조금 넘는 정도인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숫자가 2002년 현재 354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보존도서관으로의 자료이관이나 자료의 이용 및 서비스(상호대차, 직접 방문 등)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국가적 대규모 보존도서관보다는 지역에 기반한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sup>24)</sup> 그리고, 향후 국가적 차원의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와 분담수서 활성화 등 도서관 협력망을 강화되기 위해서도 지역

별/권역별 공동보존도서관 체제가 바람직하다. 지역/권역의 개념을 좁게 잡으면 광역시도별로 편제가 될 것이고, 넓게 잡으면,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거대 권역으로 편제가 될 것이므로 지역/권역별 대학도서관수와 장서수, 지역별 면적 그리고, 예산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sup>25)</sup> 여기에는 국공립대학/사립대학,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이 모두 지역/권역별로 편성되어 포함된다.

둘째, 권역별 공동보존도서관을 설립과 운영, 예산 주체의 측면을 고려해 보면, 매년 예산부족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자료구입비마저 삭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개별대학들이 권역별 공동보존도서관의 설립을 위해 분담하여 예산을 투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주(州)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Ohio주의 권역별 공동보존도서관 체제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의 권역별 공동보존도서관의 설립과 설립 이후 예산 및 인력지원의 주체는 국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권역별 보존도서관의 정책결정과 운영은 권역별로 참여하는 대학도서관의 관장급

2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의 <간추린 교육통계>(http://210.122.126.23)

25 지역별 대학도서관 수와 생활권역 등을 고려하여 서울지역(73개 도서관), 인천·경기지역(11+69=80개 ), 대전·충남·충북지역(15+31+17=63개 ), 광주·전남·전북지역(17+25+26=68개 ), 대구·경북지역(13+39=52개 ), 부산·경남·울산지역(34+20+3=57개 ), 와 강원지역(23개 ), 제주지역(7개 )으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대학도서관 수는 교육인적자원부,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2002. 11. 29)을 참조.

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처리하고, 실무적인 것은 실무자급으로 이루어진 실무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인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셋째, 권역별 보존도서관의 설립 위치문제도 중요한 문제인데, 공간은 최근 폐쇄된 동사무소나 폐교된 학교 등의 활용도 가능하며,<sup>26)</sup> 편리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 부지에 여유가 있는 대학 캠퍼스 내에 설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면적은 Northwest Ohio Regional Book Depository의 경우, 연면적 416평에 자료수장공간 276평, 자료수장용량은 최대 180만권이고, Northeastern Ohio Cooperative Regional Library Depository의 경우는, 총 412평에 자료수장공간이 303평으로 총 125만권을 소장할 수 있으므로,<sup>27)</sup> 우리나라의 권역별 공동보존도서관도 앞으로의 활용도를 고려했을 때, 최소 이 정도의 면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단, 건물의 높이는 고밀집서가를 설치할 수 있도록 9m 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넷째, 권역별 보존도서관의 시설에는 반드시 고밀집서고시설, 자료보존환경시설,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기타 이용자와 직원을 위한 시설과 공간이

필요하다. 고밀집서고시설에는 고밀집서가, 자료배가를 위한 archive box, 상자의 이동을 위한 전동수레 또는 트럭, 자료출납을 위한 전동리프트나 자동화시스템 등이 포함되고, 자료보존환경시설에는 난방·환기·온도·습도조절시스템, 보존전용구역, 특수 조명 및 창문시설 등이 있어야 하며, 보안시설에는 모니터장비, 각종 경보시스템, 화재·연기감지 및 진압시스템, 금고, 캐비넷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용자와 직원을 위한 공간에는 각종 PC, 네트워킹 장비, 팩스 장비 등 관련 장비들이 구비되어야 하고, 휴식공간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준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존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참여대학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상호대차(ILL), 원문복사, ARIEL, FAX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열람공간, 복사시설, 마이크로필름 장비 등을 갖추고 직접 방문이용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상호대차를 위한 자료배송을 위한 운송수단 확보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기존의 지역별 상호협력망이 활발히 가동되는 가운데 그 협력망의 사업 중 일환으로 공동보존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존도서관의 상호대차는 기존의 상호협력을 위한 전용운송수단을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지역/권역별 상호협력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운송수단의 구축은 상당한 비용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내의 택배업체와 계약을 통해 건별로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26 이용남 등저, 『도서관협력망 협력사업 표준모델 개발』,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1. 47쪽.

27 Northeastern Ohio Cooperative Regional Library Depository 홈페이지(<http://riker.neoucom.edu/~jscalf/statewide.html>)

일꾼제, 권역별 보존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된 법과 제도와 정비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항에는 “도서관 및 문고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항에는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해야 할 기준으로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가 제시되어 있고, 그 규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범규상에는 권역별 보존도서관을 설립하여 개별도서관들이 보존도서관으로 자료를 이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자료폐기 관련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사회문화적인 요인들로 인해 보존도서관으로의 자료이관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대학평가시 단순한 장서량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서규모로 대학의 위상과 권위를 나타내려는 대학당국과 대학도서관 관계자들의 잘못된 인식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공립대학의 경우, 자료의 이관과 폐기 등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계정을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현재의 법체계를 물품구입비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sup>28)</sup> 그리고, 자료의 이관을 위한 각 대학도서관의 내부 규

정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만일 자료이관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문제, 그리고 인식의 미비 등으로 보존도서관 설립 후 자료이관이 당장은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자료의 소유권은 개별 대학이 가지고 있으면서 보존과 관리만을 보존도서관에 위탁하는 형태의 방법도 고려해 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마치며

이상에서 국내 대학도서관들의 자료수장공간 부족문제를 살펴보고, 최선의 해결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존도서관의 여러 측면들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권역별 공동보존도서관의 설립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국내에서 공동보존도서관의 설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기초적인 성격의 연구이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국내 현실에 적합한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을 위한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사서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28 이용남 등저, 앞의 책, 47쪽.